

특히, 환경생태정보 분석시스템(EASYS)을 개발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인간과 생태환경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환경생태성능 가치 평가로 안정성, 자연성, 다양성, 희귀성, 취약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생태용량에서 제시한 건강성과 쾌적성 분야에 환경생태 성능 가치 평가를 연계하여 Eco Space 조성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생태적 문화의 형성에 기초한 생태문화도시를 도시 및 지역의 발전과정의 대안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생태문화도시 정책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원칙으로는 생태도시의 문화적 착근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계획과 참여의 조화, 하드웨어 정책과 소프트웨어 정책의 통합 및 지역협력체계의 지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행정조직주도형, 민간주도형, 전문가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생태문화도시비전을 분류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또한, 2009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저탄소를 고려한 생태관광에 대해 개념정의를 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저탄소 생태관광의 기능을 관광객, 관광매력물, 지역, 기후변화로 구분하였으며, 저탄소 생태관광의 기능성 가치평가와 세부평가지표를 통합하여 부문별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에는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로 도시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환경평가지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표로 17개의 핵심지표로 탄소순환, 오염, 수자원, 폐기물, 토지이용변화, 질과 인 순환으로 도출되었다.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지표로는 총 11개 분야 41개 세부 지표 항목이 개발되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